

# 활짝 핀 어린이책의 춘추시대

광복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이재철 · 단국대 명예교수

1960년 4·19의거 이후에는 신춘문예를 통해 아동문학가들이 등단하기 시작하면서 책의 내용이 질적으로 향상했다. 1960년대에는 4·6판과 국판이 혼재하는 시대였으나 활자는 8·9P에서 12P까지 다양해졌고, 제본도 호부장에서 양장본까지 나타났다. 1960년대 대표적 잡지로는 《카톨릭 소년》(1969) 등이 잇달아 창간되고 어린이 신문도 《소년동아》(1946), 《소년한국》(1950), 《소년조선》(1965)이 연이어 창간됐다.

아동문학 단행본도 1950년대까지는 연간 30종 이내였지만 1960년을 기점으로 연간 50종을 웃돌았다. 1979년 '세계어린이해'부터는 연간 100종을 상회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1980년대에는 양장·국판시대로 완전자본이 진입했다.

해방 후부터 어린이책을 출간한 주요 출판사들을 1980년대까지 간행순서로 나열하면, 정음사·을유문화사(1946), 신구문화사(1947), 계몽사(1949), 승문사(1952), 학원사(1953), 성문각(1958), 배영사(1960), 구미서관·민중서관·교학사(1961), 삼성출판사·아인각(1964), 문천사(1965), 현암사(1968), 세종문화사(1969), 건지사(1971), 에림당·문천사(1974), 창작과비평사·아동문예사(1976), 일지사·동서문화사(1977), 갑인출판사·대일출판사(1978), 계림출판사·서문당·보이스사·삼성당(1979), 한국서적공사·동화출판공사·국민서관(1981), 아동문학사·꿈동산·교음사(1982), 꿈나무·새벗·보림(1983), 웅진출판(1985), 지경사(1986), 대교문화사·대교출판사(1987) 등이다. 경영난으로 사라진 곳도 있지만 아동문학도서 출판의 붐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 1976년 이후와 전집물들

1976년은 아동문학계에 중요한 해였다. 현재까지 간행되고 있는 아동문학 전문지로 월간 《아동문예》와 계간 《아동문학평론》이 창간됐을 뿐 아니라, 여태까지 아동잡지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대상의 잡지여서 저학년·유아용 읽을거리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때 《엄마랑 아기랑》이 창간돼 그후의 《자연과 어린이》(1983)와 더불어 80년대부터 시작되

는 유아도서 출판붐을 선도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형 아동도서출판사는 198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린 월보판매용 전집류 출판에 크게 의존했다. 1980년대까지 중요한 전집물은 《소파 동화독본》을유문화사, 전5권, 1947), 《세계명작문고》학원사, 전50권, 1957), 《세계위인전집》학원사, 전50권, 1958), 《한국아동문학독본》을유문화사, 전10권, 1962), 《세계소년소녀문학전집》계몽사, 전50권, 1962), 《강소천 아동문학전집》배영사, 전6권, 1964), 《한국아동문학전집》민중서관, 전12권, 1965), 《소년소녀세계명작전집》삼성출판사, 전20권, 1966), 《소년소녀한국전집》삼성출판사, 전15권, 1966), 《유아촌 동화선집》성문각, 전10권, 1971), 《세계명작 동화극전집》법학관, 전10권, 1973), 《소년소녀한국문학전집》계몽사, 전12권, 1973), 《소파 방정환 문학전집》문천사, 전8권, 1974), 《소년소녀의 한국의 문학》신구문화사, 전13권, 1974), 《색동회 아동문학전집》(상서각, 전13권, 1977), 《문예진흥문고》계몽사, 전30권, 1980), 《한국의 전래동화전집》국민서관, 전20권, 1981), 《그림나라100》동화출판공

사, 100권, 1981~1985), 《어린이정서교육전집》(국민서관, 전13권, 1982), 《창작동화집》아동문학사, 전20권, 1982), 《이원수 아동문학전집》웅진출판, 전30권, 1984), 《새싹의 벗 윤석중전집》웅진출판, 전30권, 1988) 그리고 구연동화대전집 《별초롱 꽃초롱》보림, 전10권, 1983) 등이다.

이들 가운데 《그림나라100》은 전문적인 화가와 유명인사를 필자로 동원해 그림책시대를 연 선두주자로 당시로서는 참으로 놀라운 기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전집물 중 《세계문학전집》은 일본아동도서를 대본으로 한 중역본이 대부분으로서 20여종이나 다루어 출간한 유사전집들은 1990년대의 직역본 시대를 기다려야 했지만, 《아라비안나이트》나 《그림(Grimm) 동화집》 등 소수의 원작 직역본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일본역이 온존하고 있다.

## 진정한 어린이그림책의 모습 갖춰

1980년대에 어린이책은 진정한 그림책으로 그 본래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림

이 일러스트레이션이란 이름으로 당당히 자리매김됨으로써 아동도서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1990년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실험시대였다. 1990년대 들어서자 아동도서는 책이름의 글자체를 정서나 고딕체의 한계에서 벗어난 필기체 등 다양한 도안체를 도입했고 또 제목자체를 컬러화하는 등 성급 애니메이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림 자체도 구상화 일색에서 추상화와 상상화의 길을 활짝 열었다. 판형도 국판 일변도를 벗어나 그야말로 아동도서의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한 인상이다.

내용면에서는 급격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상업주의에 함몰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건전한 교양물이나 환경의 중요성 및 윤리도덕을 고양하는 적지않은 양서들도 있지만 아동의 비위에 영합하려는 책이 많은 것은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정식으로 로열티를 지불한 외국의 우수 그림책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

## 북한 어린이들은 어떤 책을 읽었나

북한의 아동문학도서... 보편적 덕목은 남한과 공유 가능

평생 한국아동문학을 연구하면서 북한의 아동도서를 접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면적인 자료접근이 매우 어렵다.

어렵게 허가받은 <특수자료 취급 인가증>을 토대로 중국의 동북 삼성 중 연변지역 출판사 및 연변대학 도서관 등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아동문학》 잡지를 간신히 복사해 입수할 수 있었고, 또 1970년대의 《아동문학》지를 북경대학 도서관에서 얼마간 복사할 수 있었으며 또 20여권의 동요·동화선집, 그림책, 아동문학이론서를 입수하는 데 성공해 북한 아동도서의 대략적인 윤곽만을 알게 됐다.

4년제 인민학교와 6년제 고등중학교 소년들은 《아동문학》이란 학교도서관 비치용 도서와 일률적으로 배급된 아동도서를 접할 수 있는데, 발행부수가 5천부에서 만부 가량 발행돼 각 학생들이 손쉽게 접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추측이다. 모든 아동도서는 문예출판사·문학예술종합출판사·근로단체출판사·

금성청년출판사 등에서 출판되지만 모든 인쇄제본은 평양종합인쇄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월간지 《아동문학》은 문학을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 교육잡지인데, 1948년 무크지로 출간돼 1951년부터 월간지로 바뀌어 종종 합병호가 있지만 1997년 말까지 512호까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판형은 다른 단행본과 같이 4·6판이지만 1981년부터는 국판으로 64면 고정부피를 고수하고 있다. 대체로 재생지에 7P에서 9P까지의 활자체를 쓰고 있는데 주로 8P크기 활자인쇄가 대부분인 호부장이다. 표지는 컬러표지를 쓰고 있지만 우리의 5·60년대 아동도서와 비슷하다. 다만 동요·동화선집 같은 책은 드물게 양장본일 때도 있다. 특기할 것은 금성청년출판사에서 출간된 그림책인데, 32면에서 96면까지 다양하며 4·6배판에다 사실화 또는 만화적인 완전 컬러 그림책이다.

아동용 도서의 전부가 할 월간지 《아동문

학》은 동요·동시·소년소설·훈화 할 것 없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김일성부자 우상화 및 찬송이 대부분이지만 동화분야만은 그런 체제성향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예컨대 동물·식물을 의인화하고 있으며 자유세계와 통하는 보편적 덕목을 주제로 했을 경우 소수를 제외하고는 남한의 어린이에게 읽혀도 될 내용들이다.

따라서 북한의 동화중 80%는 20%의 체제선전·계급주의·전체주의·국가주의·인민주의 경향을 제외한다면 '환상의 탈정치성'이란 중립지대에 있기 때문에 '남북어린이가 함께 읽는 동화'로서 남북아동문학사에 정식으로 편입돼도 무방하리라 판단된다.

끝으로 우리가 해방 전 월북인사의 문학작품을 1988년에 해금했듯이 북한도 1993년 해금조치를 취해 방정환·마해송·윤석중 등의 작품들을 민족유산으로 수용해 출판하고 있음을 덧붙여둔다. ◆